일본강소기업 No.28

공방이루카(工房いるか)
유행하는 것은 안 만든다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東京都墨田区立花5の9の5　テクネットすみだ403
- 분　야 : 잡화 공예품의 기획 · 제조 · 판매
- U R L : http://kobo-iruka.co.jp

2) 기업 소개

□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일

○ 금속 가공 및 인쇄, 섬유, 플라스틱 가공 등 약 3,800의 중소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도쿄 스미다(墨田)구에 조금은 색다른 공장이 있음

- 와인 병을 이용한 조명기구와 휴대전화용 액세서리, 일상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「공방이루카」라는 기업임

- 병 속에 범선 등을 조립해 넣은 수공예품의 제작 교실도 열고 있으며, 1999년 창업 이후 장난기 가득한 독특한 제품을 고안해서 판매해 왔음

- 특히 2001년에 천연목을 사용해 만든 퍼즐「도전품(挑戦品)시리즈」는 월 3,000개를 판매하는 히트 상품임

○ 최초로 발매한「矢ればできる」라는 제품은 폭 9.5mm의 화살

모형의 나무토막을 5엔 동전 가운데 뚫린 5mm의 구멍에 통과시키는 퍼즐임

-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더욱이 화살촉이나 살깃이 방해가 되어 통과시킬 수 없지만, 아키타(秋田)현의 전통공예인 「曲げわっぱ」를 만드는 방법을 참고하면 통과시킬 수 있음

○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제품의 소개와 함께 「불가사의한 화살의 전설」이라는 힌트를 게재하고 있으나 화살이 부러졌다든지 불량품이라는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다고 함

- 퍼즐을 푸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딱 한 번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다고 함

* 어느 날 수험생을 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"자신이 퍼즐을 푸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들이 하면 된다"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격려하고 싶다고 했다고 함

* 처음에는 그냥 전화를 끊었지만 2번째 전화에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애정이 느껴져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알려 주었다고 함

○ 3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이 퍼즐은 모두 전통공예와 일본 고유의 정신이 살아 있으며, 푸는 방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현대인의 부족한 호기심에 불을 붙이고자 하기 위함임

-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제품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퍼즐로 스스로 생각하고 감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함

□ 산학협력

ㅇ 이 회사는 '유행을 쫓는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' 는 것을 신조로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음

-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하게 결합하여 고객이 웃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

- 물론 '독특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' 라는 현실도 잘 알고 있음

ㅇ 때문에 이 회사는 항상 새롭고 독특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

- 와세다 대학의 지역경영과목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판촉방법을 강구하게 제안한 적도 있으며, 전시회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제품 설명과 판매를 맡긴 적도 있었음

- 이 같은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독창적인 감성을 통해 회사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으며, 언젠가는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음

□ 온기가 전해지는 제품

ㅇ 전통공예 기법을 살려 제품을 만드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이유에서만은 결코 아님

-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르는 장인의 기술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, 주변의 일상 생활용품에 응용함으로써 전통 공예의 가능성을 넓힐 목적도 있음

- 진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선진적인 발상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음